



2024년 9월 8일(제1210호) 연중 제23주일

군종주보

발행 : 군종교구 홍보국 | 전화 : 02)749-1921, 군)900-7756 | FAX : 02)790-5768 | http://www.gunjong.or.kr | email : hongbo@gunjong.or.kr

말씀

“내가 그리스도인이라니 완전 럭키비키잖아!”

“그에게 ‘에파타!’ 곧 ‘열려라!’ 하고 말씀하셨다.” (마르 7,34) 오늘 복음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들의 청에 예수님께서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고통받던 그를 고쳐주십니다. 곧 그는 그리스도(구세주)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

최근 “원영적 사고”, 곧 “럭키비키잖아!”라는 믿음이 유행하였습니다. 한 가수의 “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상황마저도 좋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세”를 두고, 그의 팬들이 만든 신조어입니다. 지금은 이를 넘어 “누구나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의 삶을 살아가자”는 믿음으로 확산되었습니다.

놀랍게도 우리가 “그리스도인”이라 처음 불리게 된 것은, “박해”라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였습니다. 예수님 승천 이후에 행해진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 이들이 생겨났고, 이들을 두고 “그리스도인”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. 곧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희망하며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.

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.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,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불안한 이, 가난한 이, 귀먹은 이, 말 못 하는 이와 같이 보일지라도,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“믿음의 부자”, “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” 됩니다.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. “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. ‘군세어져라, 두려워하지 마라.’”(제1독서)

사랑하는 군종교구 형제자매 여러분!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“완전 럭키비키한 사람”임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.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희망하며 살아갑시다. 또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,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.

“하느님,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,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,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.”(오늘의 본기도)



조해용(요셉) 신부
철성(육군 제7보병사단) 성당 주임

제 1 독 시 이사 35,4-7ㄴ

회 답 송 ◎ 내 영혼아, 주님을 찬양하여라.

제 2 독 시 야고 2,1-5

복음 본궤송 ◎ 알렐루야.

○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. ◎

복 음 마르 7,31-37

영 성 제 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, 하느님,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. 제 영혼이 하느님을,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.

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머스 신부의 시집집

열일곱 번째 시집

사목 순방 내내 저는 악인들 때문에 거의 항상 반무장을 하고 다녀야 했습니다. 그 악인들은 처음에는 신자들 사이에서 형제처럼 착하게 어울려 다니다가, 나중에는 약탈하는 이리로 변하여 몹시 사나운 원수로 소동을 피우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박해를 일삼아 진땀을 빼게 합니다.

한번은 특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

한 교우촌에서 걸어서 이틀 걸리는 다른 교우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. 눈이 많이 쌓여 걸음이 더디어져서 이틀이 지난 후에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한 읍내로 들어가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그 교우촌에 가기로 하였습니다. 그런데 주막 주인이 불량배들과 같이 저를 수상한 인물로 여겨 그 고을 관가에 고발하였습니다. 그들은 온 읍내가 떠들썩하게 몰려와 저희 일행에 대해 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나서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. 저 혼자만 미사 짐을 가지고 주막에 남아 있었습니다.

관장은 신자들에 대하여 대체로 적개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안동 김씨(安東金氏) 집안 출신이었습니다. 그는 우리를 더 자세히 심문할 마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당장 그날 밤 안으로 그 읍을 떠나 자기 관할 구역 밖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 주었습니다. 그러나 또 그 포졸들은 거의 모든 읍민들과 함께 횃불을 켜들고 우리 일행을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집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옷을 찢고, 신발과 갓을 빼앗고, 상처 투성이로 만든 후 우리를 읍 밖으로 추방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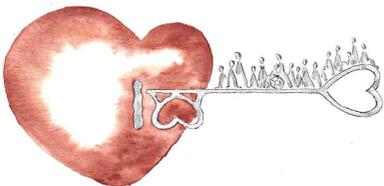
우리는 한밤중의 매서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유숙했던 주막에서 쫓겨나 매를 흠뻑 두들겨 맞고, 또 의복이 찢어져 반쯤 나체가 되었고, 강추위로 몸이 뽀뽀 얼어붙었고, 눈이 깊이 쌓여 발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, 능욕과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하였습니다. 그러나 캄캄한 밤중이라서 우리의 처참한 꼴을 감출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도 관가에서 풀려난 것만 기뻐하였습니다. <다음 주에 계속>

『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머스 신부의 시집집』 발췌,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

복 음 록 상

- 배영길(베드로) 신부 / 예수회

열려라



"열려라!"
그 마음 열어
더 많은 이를
안을 수 있게.

"열려라!"
그대! 더 크게
활짝 열어서,
행복해지소서.

"열려라!"
그 사랑을 나눠
더 많은 이가
행복할 수 있게.



▶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,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!

상화이야기

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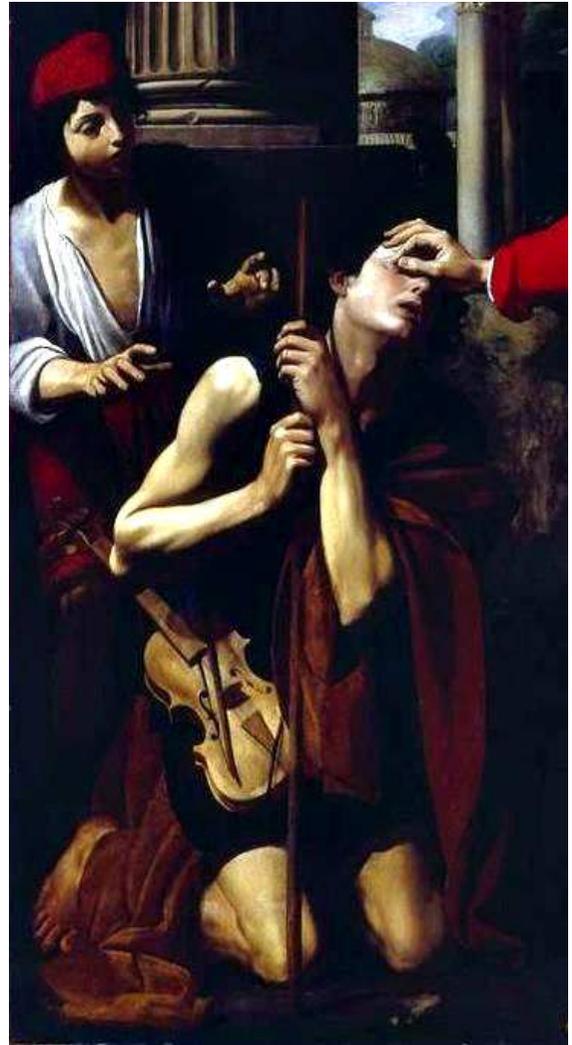


도메니코 피아셀라(Domenico Fiasella, 1589년~1669년) 캔버스 위 유화, 1615년 작

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를 허리춤에 두른(아마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.) 매우 젊은 모습의 맹인은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며, 그 뒤에 인물은 매우 놀라고 있다. 예수님 뒤에 있는 인물들은 이 일을 두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, 우리는 이들 중 어디에 속하는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자.

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, 주님은 짝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니.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,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니. (회답송 중 발췌)

김은혜(엘리사벳)



세부도

교 구 소 식

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- 연중 제23주일: 능경 신용관 신부

◆ 교구장 동정

- 한국 주교단 사도좌 정기 방문
- 때·곳: 9월 9일(월)~24일(화), 로마 바티칸 교황청

◆ ‘군중의 시간’ 인내

- 때: 주일 오후 3시 ~ 4시
- 평화방송 라디오(105.3Mhz, 서울)

“환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” - “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.” (1요한 1,9)